‘가계發’ 금융 위기 현실화 되나

■가구당 빚 4천만원 … 한국경제에 ‘암초’?

소득 줄어 채무부담 능력 갈수록 약화

부동산시장 거품 붕괴땐 부실 가능성

가계부채가 급증세를 이어가면서 금융시장 불안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정책포럼에 참석해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 **갈수록 약화되는 가계 빚 부담능력** = 4일 한은이 발표한 ‘2분기중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가계신용 잔액은 660조3천억원으로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9월말의 3.5배에 이른다. 가구당 빚도 5년전에 비해 두배가 커진 규모다. 여기에 대출 금리마저 오름세를 보이면서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함께 커지고 있다.

반면 가계의 채무부담 능력은 약화되고 있다. 가계의 가용소득에 의한 금융부채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비율은 2007년말 현재 1.48배를 나타내 2006년말의 1.43배보다 확대됐다. 이 수치는 2004년말 1.27배에서 2005년말 1.35배, 2006년말 1.43배 등으로 계속 커지는 추세다.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2분기에 뒷걸음질을 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채무부담 능력을 더욱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도미노’ 부실 우려도 높아져** = 가계의 채무 부담이 불어나면서 가계대출의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최근 보고서에서 “최근의 금리 상승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며 “향후 경기침체에 따라 가계소득이 감소하면 은행 대출 연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달 한은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계의 신용위험지수 전망치는 25로 전분기보다 12포인트 상승하면서 2004년 1분기(29) 이후로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는 의견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주택담보대출의 90% 이상이 시장금리 변동에 직접 영향을 받는 변동 금리형인 데다 만기가 3년 이내인 단기대출이 많아 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도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부터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이 끝나고 원리금 분할상환에 들어가는 대출 고객이 많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가계대출의 급증은 주로 부동산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은 것이어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붕괴하면 가계의 몰락과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 회복에도 ‘암초’** =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부분 뿐 아니라 내수 회복 등 거시경제에도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가뜩이나 고물가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내수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고물가로 민간소비가 극도로 부진한 상황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가세하면서 부진의 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9월 위기설’ 문제 없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국가신용등급 종전 유지

강만수 장관 “11일이면 위기설 과장 판명될 것”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를 비롯한 국제신용평가사들은 ‘9월 위기설’에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제히 종전대로 유지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외화표시장기채권(국가신용등급)에 대해 ‘A’등급을 유지했다고 로이터가 4일 보도했다. 등급전망은 ‘안정적(stable)’이다.

무디스도 발행을 앞둔 한국의 외화표시채권에 대해 종전처럼 ‘A2’ 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가 밝혔다. 등급전망 역시 ‘안정적(stable)’.

피치 역시 한국의 장기외화표시채권에 ‘A+’ 등급과 등급전망 ‘안정적(stable)’을 부여했다.

이들 신용평가사는 “한국은 대외채무 지불능력이 탄탄하고 수출산업 또한 다각화돼 있으며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9월 위기설’과 관련해 “국채 만기가 11일이면 종료되니까 금융 위기설이 과장됐다는 게 판명될 것이고 다음주만 지나면 상황이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금융위원회가 적절히 잘 조치해서 근거없는 얘기로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사실을 밝혀 금융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외환보유액 적정성 논란과 관련, 충분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역 우수 특산물전 광주신세계(대표 이장환)는 4일부터 열흘간 백화점 1층 광장에서 ‘광주·전남 우수 특산물전’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지역 특화상품의 경쟁력 확보 및 판로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광주 3개 업체와 전남도 10개 시·군의 21개 업체가 참여해 100여개의 우수특산물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KDI “수출 증가율 둔화”

세계 경제 침체 … 생산·소비·투자 부진

재고율 증가 … 경기 하강국면 지속 시사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의 둔화세와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전히 생산, 소비, 투자 등에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수출 증가율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4일 ‘9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7월 중 산업생산이 9.1% 증가했지만 조업일수 조정지수는 6.4% 증가하는데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서비스업생산지수도 둔화세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높은 수준의 재고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생산-재고 순환은 경기 하강국면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소비 관련 지표의 경우 7월 소비재판매액지수가 3.9%로 전월(-1.0%)보다 개선됐지만 화물연대 파업 등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작년 말 이후의 둔화세가 이어지고, 소비심리도 여전히 위축돼 있는 것으로 연구원은 봤다.

또 7월중 설비투자추계는 10.7% 증가했지만 이는 기저효과 및 항공기 수입 등에 따른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컸다.

7월 건설기성액 증가율도 10.4%로 소폭 늘었지만 6월중 건축착공면적이 주거용이 70.8%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35.1% 줄어들면서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8월중 수출입은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6월 이후 무역적자폭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8월 이후에는 국내외 경기 둔화와 수출입단가 하락 등을 고려해 볼 때 수출입 증가율이 점차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원은 전망했다. /연합뉴스

“물가 불안 … 서민생활 안정 정책 초점”

재정부, 경제동향 보고서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국제유가의 하락 전환에도 불구하고 물가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서민생활 안정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평가했다.

재정부는 4일 경제동향 보고서(그린북)에서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문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물가 오름세도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재정부는 7월 광공업생산은 수출 호조 및 소비재 판매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9.1% 늘어나 증가세가 확대됐고, 7월 설비투자추계도 자동차 등 운수장비 투자 확대로 10.7% 늘어났다고 전했다.

그러나 7월 취업자는 지난해 7월에 비해 15만3천명 늘어나는데 그쳐 고용부진이 지속됐고, 경기선행지수(전년동월비)와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 역시 각각 8개월 및 6개월 연속 하락했다.

8월 수출은 신흥개도국 및 자원부국에 대한 수출 호조로 전년 동월에 비해 20.6% 증가했지만 7월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 감소, 사업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24억5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8월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떨어져 전월에 비해서는 0.2% 하락했지만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5.6% 올랐다. /연합뉴스

“유가, 하향 안정세”

무역협회 하반기 전망

한국무역협회는 올 하반기 국제유가가 상반기에 비해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4일 내놓았다.

무역협회는 ‘국제유가 동향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이란 핵문제, 그루지야 사태 등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있고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달러화의 약세 재전환 가능성 등 상승요인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기업 채용 줄 잇는다

삼성·현대重·SK그룹 등

본격적인 하반기 공채시즌을 맞아 대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에 속속 나서고 있다.

4일 취업 · 인사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전자, SDI, 테크윈, 코닝정밀유리 등 거의 모든 계열사에서 3급 신입사원의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규모는 4천명 선에 이른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현대중공업그룹도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일반 신입직의 경우 대졸 이상이고 연구원은 대졸 이상에 이공계를 전공해야 한다.

SK그룹은 SK에너지, SK텔레콤 등 전 부문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다. 지원자격은 대졸 이상 또는 내년 2월 졸업예정자로 지원회사별로 다르다.

두산그룹도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 전 계열사에서 신입사원 공채에 나선다.

포스코그룹은 신입사원 및 연구원을 채용한다. 포스렉 연구원은 관련 분야 석사학위가 있어야 한다.

LG전자가 신입사원을 모집중이다.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 학점이 3.0(4.5점 만점) 이상이다. /연합뉴스